

<클리셰를 위하여>

1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17학번 중어중문학과

로그라인

드라마 작가 데뷔를 꿈꾸는 해주가 우연히 미스터리한 물건 클리셰북을 손에 넣게 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해주와 찬희의 예측불허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S#1. 여자의 방 (아침/안)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며시 불어오는 봄바람에 물결치듯 살랑이는 아이보리색 커튼. 얇은 커튼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비추고. 이내 뻤- 아침을 알리는 알람시계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 그 소리를 배경으로 순백색의 이불 속에 파묻혀 자고 있는 한 여자를 비춘다. 반짝이 전구로 꾸며져 있는 침대 말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는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다. 이내 상반신을 일으켜 주욱 기지개를 피는 여자. 지나치게 정돈된 머리카락, 눈곱 하나 없는 얼굴, 턱트를 바른 게 분명한 선분홍색의 입술까지. 누가 봐도 방금 자다 일어난 사람답지 않게 몹시 정갈한 모양새이다.

여자 (시계를 확인하곤) 헉 지각이잖아!

다급히 출근 준비를 하는 여자.

제작기 다른, 하지만 하나같이 스타일이 완벽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빠르게 3중 분할되고.

마지막에 분할된 세 번째 화면이 다시 하나의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문을 나서는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

S#2. 회사 외관 (아침/밖)

고층빌딩 숲. 그 사이에 위치한 한 회사의 빠가뻏쩍한 외관이 보인다.

혹시라도 지각할까 회사 정문까지 급히 뛰고 있는 여자.

꽤 빠른 속도로 뒀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며,

얼굴엔 땀 한 방울조차 맺혀져 있지 않다.

S#3. 회사 로비 (아침/안)

여자 (정문에 들어서며) 헉..헉..잠깐만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엘리베이터를 잡기 위해 뛰는 여자.

맞은편에선 웬 남자를 필두로 임원진 무리가 좌르륵 따라오고 있다.

급한 나머지 걸어오고 있는 남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여자.

결국 남자의 가슴팍에 팍! 부딪히고 만다.

동시에 !

여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하곤 달하려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다시 뛰는)

남자 (멍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직원1 아...아니 저 직원이 감히!

직원2 괜찮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런 직원들의 걱정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듯

멀어져 가는 여자만 뻘뻘 바라보는 남자.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여자의 사원증 발견하곤

무릎을 구부려 직접 줍는다.

이를 보곤 뒤에서 경악하는 직원들.

직원3 헉! 본부장님께서 무릎을 구부리시다니!

직원4 일평생 아무에게도 꿇은 적이 없다는 강철무릎인데...!

남자, 소란에 개의치 않고 여자의 사원증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남자 (달콤한 말투로 혼잣말)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 대하는 여잔 처음인데.

이때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고, 멈춘 남자의 얼굴 위로.

해주 (E) 그만, 그만!!!

S#4. 해주의 원룸 자취방 (밤/안)

카메라, 한 손에 리모컨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해주의 경악에 휩싸인 얼굴 비추고.
방 한 칸에 놓여있는 티비에는 S#3의 남자 얼굴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해주 이게...이게 뭐야. 아니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라 해서 봤더니만 상태가 왜 이래?
뭐, 나를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라고? 언제 적 인소 멘트야 대체...???

핸드폰을 켜 인터넷에 드라마 제목을 검색하는 해주.
동영상 클립 댓글 란에 들어가 보니 이번 편 레전드 찍었다는 등, 남주의 잘생김에 취한다는 등,
다음 편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등 죄다 칭찬일색의 반응들만 눈에 보이고.

해주 (어이없다는 듯) 이 정도면 세상이 나 몰래 몰래카메라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플래시백)

S#1.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여자의 모습이
머리, 눈, 입술 차례차례 빠르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잡히는 화면 위로.

해주 (NA) 아침에 풀메 상태로 일어나는 어병병한 여주에

(플래시백)

S#3. 사원증을 바라보며 느끼한 대사를 날리는 남자의 입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되고.
마치 침이 튀기는 듯 한 입을 잡고 있는 화면 위로.

해주 (NA) 세기말 멘트 따위나 날리는 남주라니.

S#5. 다시, 해주의 원룸 자취방 (밤/안)

해주 (중얼거리며) 사회악이 분명해...

그 순간 인터넷 검색창 화면 속 해주의 눈에 들어오는 시청률. 21%.

해주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 치며) 하!

S#6. 타이틀 인서트

자막 제 1장 헌집 줄게 새집 다오

S#7. 해주의 원룸 자취방 (아침/안)

뽀얀 먼지가 부유하고 있는 좁은 방.
책상 위 마구 쌓여있는 책과 더불어
낙서의 흔적이 쓰여 있는 종이들이 책상을 넘어 바닥까지 마구 나뒹굴고 있다.
좁은 방 한 칸에 놓여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는 해주.
안대를 낀 채 대자로 뻗어 잠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다.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알람소리.
이미 몇 번 알람을 껐는지 휴대폰 화면 위로 취소된 알람 표시가 뜬다.
마지막 알람을 끄기 위해 팔만 움직여 알람을 끄는 해주의 손가락 보이고.
이내 정적이 찾아온다.

해주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헉! (안대 벗으며) 지금 몇 시야
(NA) 세상은 수많은 공식들로 이루어져있다.

안 떠지는 눈을 애써 뜯 채 허겁지겁 핸드폰을 찾는 해주.
시간을 확인해보니 8시가 안 되는 시각이다.
해주, 안도의 한숨 내뿜으며 침대에서 튕겨나가듯 재빨리 일어난다.

해주 (NA) 가령 늦게 일어나도 아슬아슬하게 준비할 시간은 남긴 채 눈을 뜬다거나

Cut to.

옷을 다 차려입은 채 입에는 토스트를 물며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는 해주.
두 손은 머리를 묶느라 분주하다.
긴 머리를 높이 올려 하나로 짝 묶곤 조금 위로 당겨진 눈을 일부러 더 위로 빼죽 당기는 해주.
만족한다는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난다.

S#8. 도심 거리 (아침/밖)

보도블럭 위를 가볍게 달리고 있는 해주.
입에는 아까 다 먹지 못 한 토스트가 남아있다.
이때 갑자기 멈춰선다.
아래를 살펴보자 운동화 끈 한 쪽이 풀려있다.

해주 아이씨...(하며 무릎을 굽혀 풀린 끈을 묶는)
(NA) 급할 때 운동화 끈은 꼭 풀리게 되어있다.

S#9.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 (아침/밖)

발을 동동 거리며 신호등 신호가 바뀌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해주.
그런데 건너편에서 해주가 타야하는 버스, 이미 도착해버렸다.

해주 어어! (하고 손 뻗는데 버스 부웅-하고 떠나가 버린다)
(NA) 타야하는 버스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해버리는 게 공식 룰이다.
(허망한 표정 지으며) 누군가는 말한다. 이런 뻔하디 뻔한 공식에도 진리와 그에 바

탕을 둔 교훈이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난 그 말을 처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 할 것이다.

S#10. 북카페 (오전/안)

해주 초카! (하는 말에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직원 당황한다)
(싱긋 웃으며) 초코카라멜라떼 아이스 테이크아웃이요.

Cut to.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해주.
번잡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카페인데도 사람이 꽤 있다.

해주 (NA) 교훈이고 뭐고 그냥 진부함의 연속일 뿐이라고. 원래 공식 사이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야 그게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이를테면...(하고 카운터 안쪽 바라본다.)

카운터 안쪽에 웬 남자직원(찬희)이 뒤돌아 커피를 내리고 있다.
떡 떨어진 어깨, 허얀 유니폼 아래로 얼핏 보이는 단단한 몸 근육들.
몸을 돌리자 얼핏 그의 얼굴이 보인다.
단정하게 정리된 눈썹, 길다란 속눈썹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내려앉은 맑은 연갈색 눈동자,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미끄러질 듯한 콧날에 앵두 같은 선분홍색 입술까지.
건강한 몸과는 달리 여러여리하게 생긴 생김새라 풍기는 분위기가 신비롭다.

해주 (NA) (찬희 뻔히 바라보며) 그래. 인생에 즐거운 변수가 생기려면 저런 미인이 있어야지.

다른 손님들도 해주와 마찬가지로 찬희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며 찬희를 향한 수많은 시선을 보곤 해주, 자기가 정상이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해주 (중얼거리며) 카아...최고된다. 역시 오늘도 미모는 정상범주를 초월하네.

민준 (E) 안녕하세요!
 해주 (깜짝 놀라 뒤돌면)
 민준 (친절한 미소로) 오늘도 오셨네요~
 해주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준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해주 네?
 민준 오늘따라 안색이 좋아 보이셔서요.

민준의 말 들은 찬희, 음료 만들다 해주의 얼굴 힐끗 바라본다.
 묘한 표정을 짓는 찬희.

해주 그동안 제 안색이 어땠길래...
 민준 (고민하는 척) 음...눈 밑 다크서클이 광대랑 친구 먹을 판이었죠?
 해주 (민망한 웃음) 하하...(이내 눈 밑을 꺾꺾 누른다)
 찬희 주문하신 초코키라멜라떼 아이스 나왔습니다.
 해주 앗 그럼 전 이만. (꾸벅하며 음료 가져간다)
 민준 네~ 안녕히 가세요~

음료를 들곤 카페 밖으로 나가는 해주.
 찬희, 그런 해주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좇는다.

S#11. 스타작가의 작업실 (오전/안)

한 손에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들고 작업실로 들어오는 해주.
 들어오자마자 같이 일하는 보조작가들(세영, 지은, 유리)의 수다소리 들리고
 해주, 본인 자리로 가 앉으려는 이때 이들의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남자 (E) 당신을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치겠어.

난데없는 느끼한 멘트에 해주, 의자에 앉으려다 만 엉거주춤한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다.

해주 (NA) 데자뷰...?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썩은 미소로) 다들 지금 뭐 봐...?
 세영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눈을 떼며) 아, 이거 '어쩌다 발견한 본부장님' 요즘 완전 화제잖아.
 해주 (속으로 역시...!)
 지은 근데 대사가 영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멘트랄까?
 완전 배우빨로 묻고 가는 것 같은...
 유리 (절레절레하며) 내가 보기엔 배우빨도 아니야. 안 그래도 쌍꺼풀 진하게 생겨가지고 기름기 짹짹 흐르는데, 그 얼굴에 버터 바른 대사까지 하니까 어우~
 야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하더라.
 해주 (고개 끄덕이며 공감한 채 노트북 여는)
 세영 그런가...? 하긴 여주 설정도 영 별로더라고.
 왜 뻥뻥한 신데렐라 스토리 있지? 가난하지만 절대 울지 않는 당찬 주인공.
 지은 (깔깔 웃으며) 맞아요 거기에 남주는 완전 까칠한 본부장님~

스타작가 (E)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지은 왜 있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하고 흠칫하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방 문틀에 기대서있는 스타작가 보이고
 입은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기세로
 떠들고 있던 이들을 썰렁하고 있다.

스타작가 어머, 왜 내가 나오니까 다들 합죽이가 됐을까? 다들 한기한가봐~
 아,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마감도 진작에 끝내놓은 건가?
 유리 하하...그럴 리가요.
 (NA) (세영 바라보며) 망할...오늘 잔소리 할당량 지금 채우려나봐!
 스타작가 그래? 아니, 나는 작가님들께서 여유가 넘치시길래
 마감이라도 미리 끝내신 줄 알았지~

세영 (능청스럽게) 저희는 작가님 속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NA) 내말이. 드라마 얘기 누가 먼저 꺼냈어?
 스타작가 (갑작스러운 칭찬에 입꼬리 찡글거리며) 흥..그래? 아무튼 너희는 이래서 아직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지~
 지은 (NA) (올상인 얼굴로) 전 아니에요...!
 스타작가 나 같은 프로는 말이야...(하며 목소리 점점 멀어지는)

계속되는 스타작가의 잔소리 폭격에 다들 지치기 시작하고.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

스타작가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잘 하자 응?
 다같이 (NA) 드디어 끝인가...!
 스타작가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께선 하라는 작업은 안 하시고 뭐 때문에 그리 신나신 걸까?
 다같이 (NA) 미친 2절 시작이야???
 세영 (체념한 듯) 하...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본부장님'이 요즘 화제길래 그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잔소리 폭격이 계속 될 것을 예상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 세영.
 그런데 들려오라는 잔소리는 안 들려온 채 정적이 계속된다.

세영 ?

의아해 고개를 들면, 입을 두 손으로 막은 채 감격해 벅차오르는 얼굴을 한 스타작가 보이고.
 그런 반응이 익숙하지 않아 다들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스타작가 (호들갑 떨며)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 얘기하고 있었구나???
 진작에 말하지~ (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깨 치는)
 다같이 (황당해 병 찢 얼굴로) ???
 스타작가 그 드라마 진짜 재밌지 않나? 특히 어제엔 완전 미쳤더라.
 음 뭐랄까, 내가 다 남자주인공한테 고백 받는 여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

세영 (NA) 기회다!
 하하 맞아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NA) (곁에 있는 작가들에게 눈짓 보내며) 뭐해!
 지은 아...아 그러니까요. (어색하게 손뼉 치며) 연기 정말 잘 하던데요!
 스타작가 그치?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더니.
 유리 그런 얼굴로 그런 멘트까지 치는데, 저 순간 완전 심쿵했잖아요~
 해주 (자리에 앉아 노트북 타이핑 치며 담담하게) 그 배우 기름기 짹짹 흐르는 부담스러 운 얼굴이라며.

해주의 폭탄 발언에 보조작가들, 경악에 휩싸인 채 고개 획 돌려 해주 바라보고.
 웃는 표정 그대로 굳힌 채 끼익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주를 바라보는 스타작가.
 그런 해주, 싸해진 분위기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태연하게 노트북 타이핑 치고 있다.

유리 (더듬더듬 거리며) 아...아니~ 내 말은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감히 나 같은 건 쳐다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지~
 스타작가 (해주에서 눈을 떼 우리를 향해 다시 활짝 웃으며) 그치? 하긴 남배우 중에서도 그런 얼굴 흔치 않지~ 왜 어제 있잖아, 올백으로 이마 까면서 여주한테 고백하는데...
 해주 (말 끊고) 근데 그 배우, 머리 올린 것보다 내린 게 더 낫지 않아요?
 (똑같은 자세에서 고개만 까딱하며) 머리 올리니까 영 더 느끼하더라고요.
 스타작가 (부글부글 끓으며 해주 다시 바라보는)
 세영 (눈치보며) 야 무슨~ 원래 그런 페이스는 머리를 올리든 내리든 다 잘 어울리는 법 이라고~
 지은 맞..맞아요! 머리빨이 아니라 얼굴빨이라고 하죠 그런 걸...?
 스타작가 (해주에서 눈을 떼 지은을 바라보며) 지은이가 뭘 좀 아네.
 아무튼, 그런 영앤리치한 캐릭터는...
 해주 (말 끊고) 에이, 작가님 영은 아니죠.
 어제 보니까 카메라가 얼굴 타이트하게 잡는데 눈가에 주름이...
 스타작가 (말 끊고) 야 이해주!!!!!! (하며 소리 지르는 스타작가의 입 속과 당황한 해주의 얼굴 줌인 되며 교차 편집)

S#12. 술집 (다른 날 밤/안)

익스트림 클로즈업 된 입 안에 소주잔에 담긴 술이 들어온다.
이내 테이블에 탁! 소주잔을 내려놓는 해주의 모습으로 화면 전환.

해주 (피곤에 찌든 얼굴로) 아 죽겠다.
 유리 (쫓쫓 대며) 그러게, 유종의 미를 거둬도 모자를 판에 뽀대길 왜 뽀대.
 해주 내가 언제 뽀했다고...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 뿐이야.
 거기서 어떻게 입 발린 소리를 하나?
 세영 너 작가님 완전 그 배우 덕후인 거 몰랐어?
 그 배우 관련이면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해도 모자를 판에.
 지은 맞아요 언니. 그때 갑분싸 된 거 생각만하면...(자신의 몸 감싸며)
 저 그때 그대로 기절하고 싶었다구요.
 해주 (손 확확 내저으며) 원픽인지 투픽인지 난 잘 모르겠고,
 그 배우 하는 작품이 다 그 모양 그 꼴인 걸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그 배우 작품 보는 눈도 영 별로야.
 초장에 뽀한 로맨스물로 빵 뜨니까 계속 그런 작품만 찍는다니까?
 유리 솔직했다가 사람 죽겠네. 너 내내 밤샘하다 죽는 게 목표니?
 세영 내 말이. 야 그래도 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다행인 줄 알아.
 해주 너 폭탄발언 계속 날렸다간 중간에 백퍼 아웃됐을 걸?
 해주 (어깨 으쓱한다)
 지은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끝났잖아요 (술잔 들어올리며) 자, 같이 잔해요
 유리 무사하인지는 모르겠다만...그래 잔하자, 잔!

카메라, 부감 샷으로 4개의 술잔이 행-하며 부딪히는 모습 비춘다.

S#13. 북카페 앞 거리 (밤/밖)

유리문 위편에 달린 풍경이 맑게 딸랑 울린다.

찬희, 카페 문을 잠그고 있다. 그런 찬희의 뒤편에서

민준 찬희~ 다 됐어?
 찬희 (고개 돌려) 네.
 민준 그럼 이제 가자. 오늘 내가 태워다 줄게.
 찬희 아니요, 오늘은...
 민준 (생각났다) 아 오늘이 그날이던가?
 찬희 (고개 끄덕)
 민준 시간 참 빠르네...(찬희 뺨히 바라보다 외락 안으며 장난기 어린 말투로) 아이구~
 그럼 우리 찬희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건가~?
 찬희 (질색하며 벗어나려 애쓰며) 으음, 저리 안 떨어질니까?
 저 사람 때리는 취미 없습니다.
 민준 (양 손 위로 올리며) 어이쿠, 그럼 안 되지.
 난 오래오래 살아서 부자 되는 게 꿈이거든.
 찬희 (손으로 옷매무새 정리한다)
 민준 밥 잘 챙겨먹고. (찬희의 어깨 가볍게 한번 토닥이며) 그럼 잘 가라.
 찬희 (꾸벅하며 간다)

민준, 멀어지는 찬희의 뒷모습 바라보다 예휴- 한숨 쉬곤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간다.

S#14. 술집 (밤/안)

사람들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한 술집. 시간이 꽤 흘러 다들 술에 만취해 있다.
해주, 술에 취해 어지러운지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

유리 아 맞아, 해주 너 결국 그거 나갔어?
 해주 (엎드린 채 웅얼거리며) 뭐...?
 유리 왜 그거 있잖아, 몇 달 전부터 나갈 거라고~ 나갈 거리고 염불을 외우던 거.
 지은 뭐예요 언니? 결국 공모전 나간 거예요?
 해주 (고개 벌떡 들며) 당연하지! 내가 언제까지 서브라인만 쓸 수 없잖냐.

세영 대단하다 너도 진짜. 그 바쁜 시간에 언제 또 공모전까지 병행했어?
 유리 내말이. 이해주 악바리 하나는 인정.
 세영 그래서, 자신은 있고?
 해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글 못 쓰는 거 봤어? 이번엔 무조건이야.
 윤석 선배도 이번엔 가능성 있다 그랬어.
 세영 (놀라며) 그 선배가? 윤석 선배, 이번에 공모전 심사위원 아니었어?
 지은 (눈 초롱초롱 빛내며) 대박! 언니 그러면 이번에 진짜 데뷔하는 거예요?
 해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두고 봐.
 곧 화면에 내 이름 단독으로 걸려있는 거 보게 해준다 내가.

S#15. 해주의 원룸 자취방 (오전/안)

카메라, 화면 큼지막하게 노트북 화면 비추고
 화면 안에는 '제X회 TBM 2020 스토리 공모전 수상명단' 이라 써져있다.
 이윽고 해주가 쓰고 있는 안경 위로 환한 노트북 화면 비춰지는데
 해주, 낭패어린 얼굴이다.

해주 뭐지? 내가 술이 덜 깬나? (눈 비비며) 분명 여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어 홈페이지를 딸각딸각 새로고침 해보지만 여전히 해주의 이름은 안 보이고.

해주 없어. 진짜 없다고.
 (갑자기 몸을 뒤로 눕혀 발버둥 치며) 아아악!!! 이게 말이 돼?
 내 이름이 걸려 있어야지 왜 걸려져 있는 거냐고!
 이번엔 진짜 확실했는데 도대체 어떤 작품이...

하는데 갑자기 티비에서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오고.
 해주,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 획 돌려 티비를 바라보자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본부장님' 재방송이 나오고 있다.

해주 망할...저건 왜 허구한 날 재방송이야?!

해주, 피곤해 손바닥으로 눈을 문지르는 순간 윤석 선배와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S#15-1. 회상 인서트-방송국 사무실

윤석 (해주의 어깨 두드리며) 걱정 마. 이번엔 해주 너 말곤 붙을 인제가 없어요~
 해주 (기뻐하며) 정말요? 저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거든요 선배.
 윤석 그래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병든 닭 같은 얼굴 좀 그만하고 다녀라.
 여자애가 얼굴에 생기도 없이, 이게 뭐냐?
 해주 (난데없는 말에 못 마땅한 표정으로) ?
 윤석 하하...내 말은 아무튼 이번엔 기대 좀 해도 된단 말이야. (허세부리며) 어?

S#15-2. 다시, 해주의 원룸 자취방 (오전/안)

해주 이 선배가 진짜...이럴 거면 헛바람이나 넣지 말던가.
 (핸드폰 켜며) 두고 봐. 어떤 내용이길래 1등을 차지했는지 내가 알아내고 만다.
 (하며 전화 건다)

S#16. 방송국 건물 앞 (낮/밖)

보도블럭 위를 내딛다 갑자기 멈추는 해주의 발이 익스트림 클로즈업되어 보이고.
 해주 뒤로 시내버스가 부웅-하며 지나간다.
 해주, 도심숲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한 빌딩을 바라보고 있다.
 빌딩의 외관엔 '제X회 TBM 스토리 공모전 수여식'이라 쓰여 있는 플래카드 걸려 있다.

해주 후! 가볼까.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해주의 뒷모습 보인다)

S#17. 방송국 건물 복도 (낮/안)

해주, 사무실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

복도 맞은편에 해주를 발견하곤 다가오는 웬 무리들(선배1, 선배2, 선배3).

선배1 어이-! 이해주 아니야 이거!

해주 (누구나는 듯) ?

선배2 그러게 오랜만이다.

해주 누구...?

선배1 나 기억 안 나? 왜 전에 명옥 작가님 사무실에서 만났었는데.

해주 (어찌라고 하는 무심한 표정)

선배1 (멋쩍게) 하하...우리 같은 대학 선후배이기도 한데!

해주 (마지못해) 네...

선배3 야 그만해라 이 여성분은 너한테 관심없었나보지~

선배1 (이에 발끈하는) 뭐? 이 새끼가...(하며 투닥투닥하고)

선배2 여긴 어쩐 일이야?

해주 아...윤석 선배 좀 만나려요.

선배3 윤석 선배? 우리가 아는 그 최윤석? 개는 왜요?

해주 별거 아니에요. 뭐 좀 물어볼게 있어서.

선배1 그래? 급한 거 아니면 우리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불일은 나중에 봐도 되잖아?

선배3 그래요. 우리 지금 막 점심 먹으러 나가려는 참이었거든.

우리가 사줄게. (하며 해주의 손목 잡는다)

해주 (잡힌 손목 탁 빼내며) 제가 밥을 먹고 왔거든요.

두 번 먹으면 제가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선배1 엇 그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해주 (말 끊으며)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럼 이만. (꾸벅하며 스쳐지나간다)

해주, 이들을 무시한 채 복도 두벽두벽 걸어가고.

멀어져가는 해주의 뒷모습 얼빠진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

해주 (잡혔던 손목 매만지며) 아씨...재수 없게.

S#18. 방송국 사무실 (낮/안)

해주 (종이뭉치를 소리 나게 탁- 내려놓으며) 이게 뭐예요???

해주, 사무실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맞은편에 앉아있는 윤석을 향해있고.

윤석, 그런 해주의 형형한 기세에 짓눌린 듯 흠칫하며 몸을 쭉 뒤쪽으로 빼고 있다.

윤석 (모르는 척) 응? 이게 왜...??

해주 말이 돼요? (한 손에 종이뭉치를 쥐고 흔들며) 티비를 틀기만 하면 여기저기거기

온갖 데에서 나올 정도로 뻘한 내용이 이번에 1등을 했다는 게?

지금 저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윤석 (난처한 표정 지으며) 윗분들 뜻이 그런 걸 어쩌겠냐.

나도 이번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해주 다른 건 다 그렇다쳐도, (대본 중 한 군데를 가리키며) 이런 대사가 나뉠굴고 있는

대본이 1등한 건 말이 안 되죠! '어찌다 발견한 본부장님' 시즌2야 뭐야.

윤석 아, 그 점을 높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그 드라마가 가장 핫하잖아?

해주 (어처구니없는) 네?

윤석 왜 그런 말 있잖아. 안전한 게 곧 대중적인 것이다.

이 기세를 몰아 이번 기획에 비슷한 걸로 시청률 한번 뽕 뽕으시겠다 이거지.

해주 그런 개뻥다구 같은 말을 누가 믿는데요?

윤석 (당황해 해주의 말 곱씹으며) 개뻥다구...흠흠 아무튼 너 이거 어디 가서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보여줬다고 소문이라도 돌면 나 한 소리 듣는 단 말이야~

옆에서 계속 뭐라 말하고 있는 윤석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듯

해주, 생각에 빠져있다.

해주 (NA) 하...김새게 진짜. 여기까지 온 교통비가 아깝다.

S#19. 방송국 여자 화장실 (낮/안)

세면대에서 씻어-하고 쏟아져 내리는 물. 물이 해주의 손바닥에 파고든다.
해주의 얼굴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고,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는 해주.

해주 (NA) 정신 차리자 이해주. 이번 기회만 기회가 아니잖아? 어차피 공모전은 또 열릴 테고, 그동안 난 다른 작품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괴감 어린 말투로) 난 또 백수가 되는 거겠지.

깊게 한숨을 내쉬는 해주.
이내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 손바닥으로 양 볼을 가볍게 짝- 때린 뒤
높게 하나로 묶은 머리를 풀어 다시 묶기 시작한다.
순간 갑자기 끊어지는 고무줄.

해주 앓 따가워! (손에 고무줄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한숨 쉬곤)
고무줄이...(하며 주변 둘러보는데 아차! 한다)

(플래시백)

S#18. 해주, 사무실 의자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는 바람에
의자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해주의 가방 바닥으로 떨어진다.

해주, 한숨 쉬며 거울 바라보는데 긴 머리카락 어깨위에 쏟아져 있고.
순해 보이는 눈을 괜히 손가락으로 빼죽 위로 올려 눈매를 날카롭게 만든다.

해주 (손가락 떼며)...빨리 갔다 오자.

S#20.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복도 코너를 돌기 직전 웬 수군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멈춰선다.

선배1 (E) 아~ 이해주 개 그래서 찾아온 거였냐?

자신의 이름 들리자 뭐지? 생각하며 고개를 빼꼼 내미는 해주.
앞서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1,2,3과 윤석이 해주의 뒷담화를 까고 있다.

S#20-1.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윤석 그렇다니까~ 지가 왜 떨어졌는지 어지간히 궁금했나봐.
뭐 묻은 개 마냥 부리나케 달려오더라니까?

해주 (NA) 저 선배...아니 저 새끼가?

윤석 내 참. 그 전에 입 발린 말 몇 마디 좀 해줬더니 지가 진짜로 볼을 거라고 생각했
나봐. 자만심도 그 정도면 병이야 병.

S#20-2.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내밀었던 고개 다시 돌리며 딱친 얼굴로) 앞에선 후배 세상 아기는 척 하더니,
그게 다 쇼였단 거지?

S#20-3.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선배1 이야~ 역시 인간은 쉽게 안 변해.
이해주 개 대학 때도 선배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냐?
지 잘난 맛에 취해 다녔다니까? 선배들이 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배2 (코웃음 치며) 야 그건 아니지~

너 대학 때 이해주 좋다고 엄청 따라다녔던 거 기억 안 나냐?

선배1 (뜨끔하며) 무슨! 내가 언제!

S#20-4.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 누구였지?

S#20-5.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선배2 아니, 이해주가 좀 괜찮게 생겼잖아?
 그래서 새내기 때부터 은근 인기 장난 아니었는데 한 명도 안 받아주는 걸로 유명
 했거든. 애도 그 중 하나였고.

선배3 (낄낄 웃으며) 미친. 그런데 상대방은 너 기억도 못 하는 거였음?
 윤석 (덩달아 웃으며) 뭐야, 언제 그랬냐?
 선배1 닥쳐라.
 선배2 이 새끼 이해주 새내기 때 꼬실 수 있다며 존나 만만하게 봤다가 개쪽 당했잖아.

S#20-6.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누구인지 계속 생각하는 표정)
 선배2 (E) 사람들 다 모여서 학식 먹는데 거기서 스토커 취급 받...
 선배1 (E) (어금니 꼭 깨물며) 닥치르그...
 해주 (생각났다) 아...!

S#20-7. 회상 인서트-대학교 식당 (낮/안)

동기들과 함께 학식 먹고 있는 해주.
 그런 해주의 빈자리에 선배1이 넓다 앉는다.

선배1 안녕?
 해주 (빨히 바라보다 고개 꾸벅하는)
 동기 (흠긋 바라보며) 아는 사람이야?
 해주 아니. 처음 보는데.
 선배1 에이 처음보긴~ 나 좀 섭섭해질라 그래.
 해주 저 아세요?
 선배1 너 이번에 국문과 신입생 맞지? 난 너 선배.
 해주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면)

선배1 그런 의미에서 학교 적응 잘 하라고 오빠가 밥 한 번 살게.
 (핸드폰 내밀며) 전번 좀.

S#20-8. 다시,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NA) (기가 찬 듯) 그때나 지금이나...
 (코너 바깥쪽 바라보며) 역시 인간은 쉽게 안 변해~

S#20-9.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선배3 어쩐지~ 애가 순하게 생겼는데 은근 성깔 있더라.
 아까 내 손 탁 치는 거 봤지.
 윤석 야, 은근이 아니야. 아주 선배를 찜 찜 먹으려 한다고.

S#20-10.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NA) 내가?

S#20-11.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윤석 후배면 후배답게 좀 사근사근하게 굴어야지. 여자애가 드세가지고...

S#20-12.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NA) 미친...지금 2020년 맞나? 이게 웬 시대착오적 발언?

S#20-13.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선배1 내 말이 그 말이야. 남의 진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선배2 (웃으며) 진심은 무슨...

야 너 아까 전에도 개 한 번 꼬서볼라다가 안 되니까 이라는 거 아니야.

선배1 아~ 이 새끼는 아까 전부터 왜 이래?

선배3 (같이 실실 웃으며) 그만해라 애 짹맞아서 순살 되겠어.

S#20-14.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NA) 하...총체적 난국이구만.
(풀려져 있는 머리카락 매만지며 고민하는 표정으로) 가야되는데...

S#20-15.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윤석 허구한 날 대부분은 예술작품이라느니~
클리세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은 사회악이라느니~ 하는데 지가 세익스피어야?
이번에 1위한 대본 슬쩍 보여줬는데도 그 소리 하더라.
그렇게 불만이면 지가 심사위원 하든가~ 뭣도 아니면서 맨날 귀찮게 굴어.

선배3 그러면서 너 왜 입꼬리는 실룩 올라가있나?
너도 이해주인지 뭔지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선배1 (갑자기 경계하며) 뭐? 진짜냐???

S#20-16. 방송국 복도 (낮/안)

해주 (NA) 언제는 나보고 입조심 하라더니. (속으로 끝끝 차며) 지가 저 입으로 나불대
고 있네.

귀 기울여 들어보니 투닥거리는 소리 계속 들리고. 이내 지겹다는 얼굴을 짓는 해주.

해주 아 몰라,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를 계속 듣다가 내 귀가 썩을 것 같아. (하며 사무
실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

S#21.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계속해서 투닥거리다 복도에서 걸어오는 해주 발견하곤
혁하며 일제히 입을 다무는 선배1,2,3과 윤석.
해주, 이들을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표정 없이 다가오는데 마치 영원 같다.
뚜벅거리는 해주의 발걸음. 찰랑이는 해주의 긴 머리카락.

선배1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 머리...!
선배2 (속삭이며) 뭐야? 나 재 머리 푸른 거 처음 보는데?

해주, 그런 선배1,2 힐긋 보다 고개 돌려 윤석 앞에 발걸음을 멈추곤 뻘히 쳐다본다.

윤석 (당황한 얼굴로 더듬으며) 어..어 왜...?
해주 문. (고갯짓하며) 선배가 막고 있잖아요.
윤석 아...! (하며 후다닥 옆으로 비키는)

S#22. 방송국 사무실 (낮/안)

문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해주.
그런 해주를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 차린 듯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다.

윤석 (문 밖에서 쭈뼛쭈뼛 대며) 여...여긴 왜 다시 온 거야?
아까 갔던 거 아니었어?
해주 (바닥에 떨어져있는 가방 발견해 집어들리곤 윤석 돌아보며) 이것 때문예요.
이 안에 소중한 물건이 많아서 아무~리 뭣 같아도 (차례차례 선배1,2,3 돌아보
며)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해주, 이만 사무실에서 나가려는데 문 앞에 이들이 모여 있다.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노려보자 이내 해주의 기세에 눌러 흠칫 양 갈래로 갈라진다.

S#23. 방송국 사무실 앞 (낮/안)

갈라진 사이로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 나가는 해주.
찰랑이는 해주의 머리카락이 마치 전사의 망토처럼 보인다.

해주 (NA) 내 손에 휴기가 없던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것들아.

S#24. 도심 거리 (오후/밖)

회사빌딩이 높게 솟아있는 도심 거리 한복판,
복잡이는 사람들 틈 속에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해주.
어느새 머리를 하나로 높이 묶었다.
해주의 눈에 사원증을 맨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주 (NA) 다행은 무슨...지금 네 코가 석자다 이해주.
(중얼거리며) 힐링...힐링이 필요해. (하는데 아 뭔가 생각났다)

S#25. 북카페 (오후/안)

딸랑거리는 풍경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해주.
두리번거리며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하는데 찬희가 보이지 않는다.

해주 (NA) (가우똥하며) 이상하다. 오늘은 근무 안 하나?

해주, 주문을 완료하곤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아 앉는다.
해주가 앉은 자리 뒤편 여러 두께의 책들이 뽁뽁이 꽃힌 책장이 놓여 있다.

해주 (NA) 책 냄새...(하며 눈을 감곤) 좋다.
민준 (E) (음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안녕하세요!
해주 (깜짝 놀라 눈 뜨며) 아, 안녕하세요.

민준 이 시간대에 오시는 건 처음이시네요.
해주 (민망한 웃음) 하하...이젠 앞으로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오실 때마다 서비스 좀 더 드려야겠어요.
명색이 저희 카페 단골이신데.
해주 감사합니다. (하며 두리번거리는데)
민준 (그런 해주의 시선 눈치 챌 듯) 오늘은 안타깝게도 비번이어서요.
해주 (어리둥절) 네?
민준 저희 직원이라 원래 대부분 카페에 상주를 하는데, 오늘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해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하며 음료 마시는)
민준 (해맑게) 찬희요. 저희 가게 마스코트잖아요.
해주 (당황해 사레가 걸렸다) 썩썩-!!
민준 (해주 반응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역시 찬희 그 자식을 저희 카페에 데려온 보람
이 있단니까요? 그 자식, 말수는 없어도 얼굴값은 제대로 하니깐요.
덕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하며 행복한 표정 짓는)
해주 (NA) (이내 진정하며) 그건 그래.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 시력이 다 상승하는 느낌이었다니까.
민준 아무튼 오늘은 아쉽네요,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해주 ! (손 휘저으며) 아니, 그게 아니고...
(NA) 그건 맞지만요, 사장님...
민준 (말 끊으며) 그래도 내일은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주 아니 사장님, 제 말 좀...
민준 (말 끊으며) 그럼 주문이 밀려서 전 이만. (꾸벅하며 멀어진다)
해주 (NA)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 바라보며) 옥, 이렇게 덕밍아웃을 하시면 제가 다
쪽팔리다구요~!! (하곤 얼굴을 양 손에 묻는데)
(이내 양 손을 얼굴에서 떼 중얼거리며) 하...조용히 감상만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플래시백)

S#10. 커피를 내리는 찬희의 모습.

해주 하긴, 그 얼굴을 보면 어느 누가 태연할 수 있겠어.
(현타) 에휴, 힐링하러 와서 얼굴은 못 보고, 정작 엄한 사람한테 들키거나 하고
얼른 집에나 가자. (하며 음료 벌컥벌컥 들이킨다)

순식간에 음료를 다 마신 해주. 짐을 챙기려 별땃 일어나는데
그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뒤쪽의 책장을 퍽-치고
그 바람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몇 권의 책들이 우르르-하며 쏟아진다!
이때 한 권의 책이 쓱- 해주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해주 혁!

책이 쏟아지며 난 큰 소리 때문에 카페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고.
아까까진 사람들 말소리에 문혀 잘 들리지도 않던 카페 노랫소리가
이젠 가사까지 뚜렷하게 들릴 지경이다.

해주 (NA) 악! 오늘 무슨 날이야???

해주, 당황해 새빨개진 얼굴로 바닥에 널브러진 책들 허겁지겁 줍는다.

민준 (놀라 뛰어오며) 괜찮으세요?

해주 (애써 웃으며) 네네 괜찮아요.

민준 가만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해주 아니에요! 거의 다 주웠어요. 제가 할게요.

(NA) 아 쪽팔려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

민준 그럼 주운 책이라도 저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해주 (책 내밀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민준 (상긋 웃으며) 뭘요. 그런데 다친 덴 없으세요? 아까 보니까 소리가 꽤...

해주 (말 끊으며) 괜찮아요! 그럼! (하며 후다닥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 나오고)

민준 (그런 해주의 뒷모습 바라보며) 꽤 아팠을 것 같은데...(고개 가웃한다)

S#26. 북카페 앞 거리 (오후/밖)

해주 (머리 손으로 쥐어뜯으며) 으악! 이게 무슨 추태야! 아 쪽팔려...

해주, 갑자기 팔이 옥신거리려 얼굴을 찌푸린다.

책이 떨어질 때 맞은 부위다.

해주 (아픈 부위 손으로 감싸며) 그 와중에 팔도 아파...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야?

해주, 투덜투덜 거리며 걸어가다

갑자기 발걸음 푹 멈추곤 다시 뒷걸음질 친다.

옆에 위치한 편의점을 뚫히 들여다보는 해주.

S#27. 해주의 원룸 자취방 (저녁/안)

빠리릭-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는 해주.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해 방 안이 어둑어둑하다.

타이밍 느리게 현관의 센서등이 깜빡 켜진다.

신발을 신경질적으로 벗고 있는 해주.

그런 해주의 한 손엔 편의점에서 산 몇 개의 소주팩이 담긴 비닐봉투가 들려있다.

방 안에 들어온 해주, 불도 켜지 않은 채 테이블에 비닐봉투 올려놓곤

소주팩을 꺼내 빨대를 꽂아 쪼로록- 마시기 시작한다.

해주 (NA) 그러고 보니 오늘...처음부터 날이 영 아니었어.

(플래시백)

S#17. 해주에게 걸떡대는 선배1과 해주의 팔목을 잡는 선배3.

S#18. 1등 시나리오를 확인하곤 충격 받은 해주의 얼굴.

S#20. 자신의 뒷담을 까는 선배1,2,3과 윤석.

해주 하...그때 왜 그냥 나왔지. 말로만 해선 들을 위인들이 아닌데.
 오늘 완전 재수 옴 붙은 날이네.
 (생각하다) 아니, 오늘이 아니지. 시작은...

(플래시백)

S#15. 노트북 화면 속 해주의 이름이 없는 수상명단.

해주 그래. 그때부터였지. 무슨 운수좋은 날이야?
 이렇게 첩첩산중...아니지. 운수좋은 날은 그래도 좋은 일이 있긴 있었잖아?
 그런데 나는...(술기운이 올라오며 울적해지는) 이번만은 확실했는데..
 왜 내 작품이 아닌 그 새끼끼 뽑히냐고.
 (감정이 올라오며 빠르게) 정말 뻘뻘한 내용들을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왜?
 왜 내 작품의 예술성을 몰라주는 거야? 그렇게 대중성이 중요해?
 이미 클리셰 범벅인 이야기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하며 다 마신 소주팩
 바닥에 내팽개친다)

Cut to.

또 다른 소주팩을 뜯고 있는 해주.
어두운 방 안에는 흰 달빛이 들어오고 있고
몇 개를 더 마셨는지 이미 여러 개의 소주팩이 해주를 에워싸고 있다.
해주, 취할 대로 취해 얼굴이 빨개졌다.
이때 핸드폰 갑자기 띵띵-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게 빛난다.

해주 (눈부서 눈 찌푸리며) 응? 뭐야.

해주, 핸드폰 확인해보니 세영, 지은, 유리가 보낸 메시지 와있다.

'야 너 괜찮아?'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콜 하는 거 아시죠?'

'이해주, 미련하게 혼자서 땅굴 파고 있는 건 아니지?'

해주 (피식 웃으며 다음 메시지 확인하는데)

'안 괜찮으면 어쩔 수 없고 백수 된 기념으로 이 언니가 내일 밥 쏜다~ '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긴 뺏쳐서 난리치는 것보단 혼자 땅굴 파는 게 낫긴 하지만.'

해주 (벌끈하며) 이 자식들이? 누굴 시한폭탄으로 보나. 떨어뜨리면 폭발하게.
 (곰곰이 생각하며)...맞나? 아 몰라.

해주, 머리아파 더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싫다는 듯
근처에 널브러진 가방 안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으려는데,
흔들거리는 해주의 시야 사이로 가방 안에 무언가 보인다.

해주 (가방 열며) 뭐야 이게...?

꺼내보니 웬 낡은 책이 들어있다.
한 손으로 쥐기 힘들 정도로 두꺼운 게 마치 사전 같은 모양새이다.

해주 (제목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클리,..세...복...?

바랄대로 바란 책 겉표지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Cliché Book'* 이라 쓰여 있다.
순간 빛이라도 든 양 번뜩 빛나는 제목.

해주 아, 혹시 아까...

(플래시백)

S#25. 해주가 책장을 팔꿈치로 치자 와르르 쏟아지는 책들.

그 가운데 책 한 권이 해주의 가방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해주 (관자놀이 짙으며) 귀찮게 됐네...

해주. 신경질적으로 책을 잡고 앞뒤 면을 확확 뒤집어 보다
이내 표정이 퍼뜩 바뀐다.

해주 아니지. 어차피 공모전도 떨어졌겠다.
당분간 할 것도 없는데 이거 돌려줄 겸 카페나 가서 얼굴이나 실컷 구경해버려?
(고개 끄덕이며) 그래...힐링도 하고 영감도 얻는 거지.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하다 아차! 생각났다)

(플래시백)

S#25.

- '찬희요' '내일 이 시간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는 민준의 말.
- 책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해주에게로 쏟아지는 시선. 허둥지둥하며 책을 잡는 해주의 모습.

해주 이런 꼴을 보이곤 쪽팔려서 어떻게 가냐고!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내일!!
(고개 저으며) 하...역시 그건 아니야...

해주, 책을 좌르륵 넘겨보는데
오른쪽 페이지에는 클리세의 제목과 내용이,
왼쪽 페이지에는 관련 삽화가 그려져 있다.

해주 (코웃음 치며) 뭐야. 드라마의 온갖 공식이란 공식은 다 때려 박은 이 사전은...?
(책 표지 확인하며) 클리세가 진짜 그 클리세를 말하는 거였어?
하, 요즘 핫한 드라마는 다 이걸 교과서로 썼나보네~
이것만 깔끔하게 불태워버리면 좀 더 팬찮은 세상이 될 텐데 말이야. (하며 책을 내팽개친다.)

책을 내팽개치곤 비닐봉투를 뒤져 남은 소주팩을 하나 더 끼는 해주.
하지만 무언가 불가사의한 기운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책으로 시선이 향하는데.

해주 흠...한 번 보거나 해볼까.

끝내 손을 뺀 채 책을 가져오는 해주.

S#28. 도심 외경 (밤/밖)

고요한 밤. 도심 한 가운데인데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차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조차 볼 수 없다.
유난히 흰 보름달만이 밤하늘에 떠있고
빛나는 달빛이 새끼만 이파리에 부서져 내려앉는다.

S#29. 도심 일각 외경 (밤/밖)

카메라, 도심 속 한 건물의 외관 비춘다.
빹빹이 나열된 창문 중 유일하게 불이 안 켜진 방 보이는데,
해주의 자취방이다.
어스름한 달빛이 비추는 창문 안으로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 해주의 모습 보인다.
웃고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S#30. 해주의 원룸 자취방 (밤/안)

해주 (폭소하며) 뭐야. 이 책 왜 이렇게 웃겨!
클리세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다음 페이지 넘기며)
내말이. 왜 주인공 집은 항상 운동장만한 건데? 진짜 웃겨,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인이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녔냐고.
남주는 구두 신은 발로 대리석 바닥을 뚜벅뚜벅 걸어 다니지 않나~
자칭 가난한 여주는 돈 없다고 옥탑방에 살면서 정작 내부는 엄청 이쁘게 꾸며져

있지 않나~ 아주 인테리어 업자 저리가라야~
(자신의 좁은 방 돌아보다 이내 옥하며) 이런 집이면 나라도 살고 싶겠네!

술에 취한 채 계속해서 공시령 공시령 대는 해주.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잠이 쏟아져
테이블 위 펼쳐져 있는 책을 베개 삼아 그대로 잠이 들고 만다.

S#31. 해주의 원룸 자취방 (밤/안)

해주, 책을 베개 삼은 채 잠에 골아 떨어져있다.
어두침침한 방 안에 들리는 것은 방 안에 드릉드릉- 울려 퍼지는 해주의 코고는 소리.
코까지 고는 것은 물론 침까지 흘러며 자고 있는 해주.
덕분에 베고 있는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얼룩이 졌다.
이때 자는 자세가 불편했는지 해주,
뒤척거리며 무의식적으로 반대쪽인 왼쪽 페이지로 고개를 돌리고
동시에 해주가 흘린 침으로 인해 오른쪽 볼과 딱 붙어있던 책의 오른쪽 페이지가
부욱-하는 소리와 함께 찢겨져 나간다.
그녀의 볼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이내 바닥으로 팔랑-하고 떨어지는 책의 페이지.
이때 갑자기 페이지의 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빛이 나기 시작한다!
빛은 점점 페이지 전체로 번져나가더니,
이내 황금빛 아우라가 되어 방 안을 집어 삼킨다.
해주의 방이 찰나의 순간에 환한 대낮보다 더 환하게 밝혀진다.
빛이 나기 시작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책 페이지가 떨어졌던 바닥에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 마냥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고.
해주,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굳이 잠에 빠져있다.

S#32. 해주의 원룸 자취방 (낮/안)

해가 중천에 뜬 평화로운 정오.
해주, 아직 한밤중인 듯 어제의 자세 그대로 자고 있다.

아때 진동과 함께 평화로운 적막을 깨는 띵띵- 핸드폰 소리 들리고.
해주, 자고 있는 자세 그대로 흠칫한다. 잠시 정적.

해주 ... (갑자기 고개 일으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헉! 지금 몇 시야!

허겁지겁 핸드폰을 찾는 해주.
어제 밤 책상 위에서 그대로 잠 든 탓인지 목이 걸렸다.
눈은 삼분의 이가 감기고, 목은 왼쪽으로 꺾여있고, 입가엔 마른 침 자국이 여전히 붙어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12시가 훌쩍 넘어있다.

해주 (벌떡 일어나며) 미친! 완전 지각...(하다 깨달았다)
(바닥에 대자로 주저 누우며) 하... 맞다 나 이제 백수지.

(플래시백)

S#8과 S#9의 바쁘게 출근하는 해주의 모습

해주 그래~ 요즘 너무 바빠. 이런 여유도 나쁘지 않지.
(양 손을 위로 쭉 뻗으며) 무려 오늘은 백수로서 여유롭게 맞이하는 첫 아침이라고!
(표정 찡그리며) 근데 도대체 누가 내 꿀잠을 방해한 거야?

공시령 대며 옆에 놓인 핸드폰을 위로 들어 화면을 켜는 해주.
순간 환하게 켜진 화면 불빛이 해주의 얼굴에 내려앉는다.
화면을 확인하는 해주.
그런데 짜증만이 가득했던 해주의 눈동자가 이내 놀라움에 점점 커지고.
얼마나 커졌는지 동공 안에 비친 흰 화면에 쓰인 검은 텍스트가 보일 정도이다.

S#32-1. 핸드폰 화면 창

해주의 핸드폰 메시지 창.
흰 바탕에 검은 텍스트가 뭐라고 빼곡히 쓰여 있다.

최고급 프리미엄 주택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이다.

S#32-2. 다시, 해주의 원룸 자취방 (낮/안)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해주.

양 팔을 위로 뻗어 핸드폰을 든 자세 그대로 굳어있다.

핸드폰에 가려 해주의 얼굴 안 보이는데.

해주 으아아악!!!

S#33. 브런치 레스토랑 (낮/안)

브런치 레스토랑에 온 지은, 세영, 유리.

순간 해주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다.

지은 (흠칫 놀라 두리번거리며)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세영 응? 무슨 소리?

지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유리 (물컵 가져오며) 무슨 소리아?

세영 지은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유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유리 (말 끊으며) 응? 그게 무슨 소리아?

세영 (손사레 치며) 소리 얘기는 됐고, 어제 이해주한테 연락 온 사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유리 1은 없어졌는데 그대로 읽씹 당함.

지은 저두요. 심지어 오늘 연어 먹는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유리 뭐?! 그 연어덕후가 말이야?

세영 맞아. 나도 내가 연어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낸 건 읽지도 않았어.

유리 흠...찾아간다고 한 게 잘 안 풀렸나.

지은 해주 언니, 윤석 선배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영 윤석 선배한테 전화해 물어봐도 어물쩡 넘기기만 하고...

무슨 일 있나 진짜.

S#34. 해주의 몽타주

S#34-1. 고급 주택 외관 (오후/밖)

(E) 땡- 종치는 소리

낮이 나가 멍한 해주의 얼굴 (C.U)

해주 (NA) 이게 뭐 일이지.

해주의 앞엔 부동산업자가 들뜬 얼굴로 주택 외관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업자의 말, 물속에서 듣는 듯 웅얼웅얼 들려 해주의 귀엔 잘 들리지 않고.

부동산업자 손님께서 당첨되신 최고급 프리미엄 주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올해 들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부동산업자의 얼굴 뒤로 최고급 프리미엄 주택단지가 보인다.

아이보리색 펜스와 이에 둘러싸여있는 푸릇푸릇한 짧은 잔디가 올라와있는 정원.

누가 봐도 고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아하게 건축된 주택까지.

해주,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S#34-2. 고급 주택 (오후/안)

(E) 땡- 종치는 소리

낮이 나가 멍한 해주의 얼굴 (C.U)

민준 으이 다 젖었네. (손으로 물기 탈탈 털며)
 찬희 네! 비 올 것 같으면 우산을 들고 가라 해야 할 거 아니야!
 찬희 (뻘히 바라보다 신경도 안 쓴다는 듯 고개 획 돌려 무시하는)
 민준 이 자식이 감히 형님 말씀을 무시해~~(하며 찬희 헤드락 거는)
 찬희 (질색하며) 잠깐잠깐, 물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젖는다고요. (하며 품 안에 있던 손수건 건넨다)
 민준 까탈스럽게 굴기는~ (받아 대충 닦는다)
 찬희 도대체 몇 살입니까?
 민준 (찬희 입에 검지 갖다 댈 듯) 췌. 남자 나이는 함부로 묻는 게 아니란다.
 찬희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고개 절레절레 짓곤 신경 끄는)
 민준 그나저나 요즘 왜 그 단골분은 안 오시나 몰라.
 찬희 (흠칫)
 민준 (찬희 향해) 너도 알지? 항상 머리 높게 묶어선 아침에 오시는 분.
 뭐, 최근엔 아닌 것 같지만.
 찬희 그...분이랑 친하세요?
 민준 응? 친하다기보단 우리 카페 단골이기도 하고...(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 쿡쿡
 웃는다)
 찬희 (눈썹 찌푸리며) ?
 민준 (손사래 치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최근에 웃긴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데 너가 웬일로 손님들한테 관심을 갖냐?
 찬희 (정색하며) 그런 거 아닙니다.
 민준 (능글맞게) 그런 게 아닌 게 아닌 거 같은데~
 찬희 (무시하며 뒤돌아 마저 커피 내린다)
 민준 (손으로 턱을 괴곤 흐릿한 미소 지으며) 흠음...

S#38 고급 주택 거실 (밤/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딘가 아파보이는 해주의 얼굴 (C.U)

해주 (NA) 햇빛은 개뿔이...

S#39. 고급 주택 몽타주

S#39-1. 고급 주택 (다른 날 낮/안)

관리비 통지서를 받고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는 해주.
 카메라, 관리비 비추자 어마어마한 금액이 고지서에 적혀있다.

해주 (NA) 고급 주택이 있으면 뭐하냐고.. 쓸데없이 높고 넓은 집 때문에 관리비는 왕창
 나가지

S#39-2. 고급 주택 정원 (다른 날 밤/밖)

관리를 안 해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이 가득한 정원이 해주의 눈에 들어오고.
 밤에 보니 마치 무언가 튀어나올 듯 으스스하다.
 무언가 풀 속에서 움직인 듯한 기분에 몸을 움찔 떨며 놀라는 해주.

해주 (NA) 매년 관리를 안 하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으스스한 정글이 되는 정원에

S#39-3. 고급 주택 거리 (다른 날 낮/밖)

지친 듯 터덜터덜 걷고 있는 해주.
 핸드폰 속 켜진 지도 앱과 앞에 펼쳐진 도로를 번갈아보더니
 기가 찬 표정으로

해주 (NA) 근처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라니...이게 말이야 똥이야?!

S#40. 다시, 고급 주택 거실 (밤/안)

해주 프리미엄 분위기 조성은 무슨...두 번 조성했다가 다리 부러지겠네.

(갑자기) 예취!!! (하곤 뒤집어쓴 이불 다시 공공 싸매며)

으...관리비 아껴보겠다고 하다 이게 뭐 난리야...

해주, 운동장만한 거실 한 칸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다.
평소 이곳에서만 생활하는 듯 이불은 물론 온갖 잡동사니가 이곳에 모여 있다.
넓디넓은 집과 대조되게 특정 한 공간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해주의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해주 (이마 짙으며) 아...머리야. 왜 내 집이 생겼는데 돈은 더 나가는 것 같지.

이마 짙다 순간 해주의 머릿속에
S#27의 기억이 뒤로 퇴각기되며 머릿속에 스쳐지나간다.

(플래시백)

S#27.

- 관자놀이를 짚는 해주의 모습.
- 그런 해주의 손엔 두꺼운 책이 들려있다.
- 사전 두께로 두꺼운 책. 많이 바란 책 겉표지에 'Cliché Book' 이라 쓰여 있다.
- 책 제목을 훑는 해주의 손가락.
- 가방 속에서 낡은 책을 꺼내는 해주의 손

해주 (생각났다) 아 맛다! 그 책!
들려준다는 걸 깜빡하고...그동안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었지.
내일 가야서 꼭 돌려드려야지. 카페도 오랜만에 가네~ (하다 다시 예취!)

S#41. 고급 주택 외관 (낮/안)

해주, 집 앞에서 한 쪽 어깨에 가방을 맨 채
대문 쪽에 세워둔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있다.
다 풀곤 안장에 앉아 페달에 한 쪽 발 올리고.

해주 (상괘하게) 가볼까! (하며 페달 밟기 시작한다)

S#42. 북카페 앞 거리 (낮/밖)

자전거 끼익-멈추는 해주의 발 (C.U)

해주 (진 빠진 얼굴로) 죽겠다...

안장에서 내리는 해주,
힘이 다 빠진 듯한 몸을 휘적휘적 움직여
북카페 앞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다.

해주 이게 웬 사서 고생이야.
(울상 지으며) 앞으로 버스 말고 자전거 어떻게 타지.

해주, 자물쇠 다 채운 뒤 몸을 일으켜 아무 생각 없이 투명한 유리 통해 카페 안쪽 바라보자,
카운터 안쪽에 있던 찬희와 눈이 딱! 마주치고.
찬희의 눈에 왠지 놀라움이 깃든 듯하다.

해주 (NA) (흠칫 놀라며) 응? 이 쪽 쳐다보고 있었나? (가웃하며)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안색이 별론가.
(한숨 쉬며) 에휴, 운동 좀 해야지. (하며 카페 문 열고 들어가는)

S#43. 북카페 (낮/안)

딸랑거리는 풍경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해주.
들어오면서 이까 눈 마주쳤던 찬희 쪽 다시 보는데,
착각인 듯 찬희, 카운터 안쪽에 없다.

민준 어서오세...(해주 보고) 어! 오랜만이시네요~
 해주 안녕하세요.
 민준 그 날 이후로 안 오시길래 무슨 일 생기신 줄 알았어요~
 해주 (손사래 치며 더 이상 언급하기 싫다는 듯) 아, 그날일은...(생각났다)
 아침,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가방 뒤적거리는)
 민준 ?
 해주 (책 꺼내서 건네주며) 제가 최근에 바쁜 일이 생겨서,
 진작 돌려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그날 가방 안에 책이 들어갔었나봐요.
 민준 (책 받으며) 아아, 괜찮아요.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요 뭘.
 (책 표지 보는데 가웃? 이런 책이 있었나 싶다. 책에서 눈 떴며)
 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혹시 이거 돌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와주신거?
 해주 네? 아 뭐 그렇죠.
 민준 이거 죄송해서 어찌죠.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제가 공짜로 음료 씩니다.
 (으쓱하며) 사장 권한으로요~

Cut to.

말랑거리는 풍경소리와 함께 나가는 해주의 뒷모습 바라보며

민준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하고 뒤돌아서는데 어느새 찬희, 카운터에 와있다.

민준 ? 너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냐?

찬희 그냥...

민준 그냥이라니, 상당히 수상해~

찬희, 민준의 눈 피하며 고개 돌리는데
 카페 일각의 테이블 위에 놓인 클리세북 발견하곤 멈춰서.
 뭔가 묘한 기분이 드는 찬희.

찬희 (책 바라보며) 저건...뭐예요?
 민준 (고개 돌리며) 아, 저거? 아까 해주 씨가 돌려주고 간...
 아 맞아! 아까 해주 씨 왔었어. 그 머리 항상 하나로 높게 묶으시는 단골분!
 찬희 알아요.
 민준 앵? 알아? 어떻게? 언제 봤는데?
 찬희 아까 봤어요.
 민준 아까? 보니까 아까부터 너 카운터에 없더만. 또 언제 본거래?
 찬희 (멋쩍게 목 가다듬곤) 아무튼, 저 책이 그 손님분께서 주고 간 거라고요?
 민준 정확히는 준 거 아니고, 돌려준 거. 우리 카페에 꽂혀져 있던 거거든.
 근데 너 저 책 본 적 있냐? 난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찬희 (대꾸 안 하며 클리세 북 묘한 시선으로 계속 쳐다본다)

S#44. 고급 주택 (오후/안)

(E) 띵- 도어락 여는 소리

해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친 나머지 몇 걸음 걸지도 않은 채 그대로 거실 바닥에 뺨어버린다.

해주 으 죽겠다. 벌써부터 온몸이 쭈시는 기분.

해주, 그 상태 그대로 눈을 감는다.

이내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다.

S#45. 고급 주택 거실 (밤/안)

대리석 바닥으로 된 거실에 대자로 뺨어 자고 있는 해주.

어느새 해가 떨어져 집 안이 어둑어둑하다.

해주 ... (순간 잠에서 깨며) 허역!

(몸 일으켜 침 닦으며) 뭐야 언제 잠들었지. 흐아암~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는 해주.

순간 바닥에 내팽개친 해주의 가방 사이로 무언가 보인다.

해주 ...?

해주, 가만히 있다 가방으로 천천히 손을 뺀기 시작한다.

해주 (NA) 뭐지 이 상황.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해주,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살며시 물건을 집는다.

그리곤 획! 밖으로 꺼내어 물건을 확인하는데,

아까 카페에 돌려주고 온 클리셰 복이다!

해주 뭐야 이거...!!!!

예상치 못 한 물건이 나와 경악하는 동시에

지금도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는 표정이 섞인 해주의 얼굴에서

1부 엔딩